

‘블루 카펫’ 노벨상 시상식을 다녀와서

글 | 권오갑 _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okkwon@kosef.re.kr

지난해 12월 10일 필자는 장충식 청암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벨재단 총재의 초청으로 스웨덴 노벨상 시상식과 연회에 참석했다. 12월 10일을 전후한 약 1주일간은 ‘노벨주간(Nobel Week)’이라고 하여 시상식과 만찬 외에 여러 가지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수상자들은 보통 3~4일 전 스톡홀름에 도착하여 노벨재단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수행원과 벤츠 1대가 체류기간 내내 제공되며, 수상자에게는 1등석 왕복 항공권이 주어진다.

노벨재단 초청받아 참석, 각국 과학기술관련 각료 만나

12월 7일에는 수상자별로 기자 회견을 하게 되고 각 분야 노벨 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으며 이 때 업적을 심사한 평가위원들을 만나게 된다. 8일은 수상업적을 중심으로 노벨강연을 하게 되며 이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 시민들이 대성황을 이룬다.

9일에는 노벨재단이 주관하는 리셉션이 개최되며 주로 정부인사, 노벨재단 관계자, 심사위원, 수상자와 그 가족, 각국 대사들이 초청된다. 다음날 10일은 수상식이 오후 4시 반부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수상식이 끝나면 스톡홀름 시청 홀에서 만찬 연회와 무도회가 벌어지고 수상식 행사는 절정을 이루게 된다. 11일에는 수상자가 노벨재단에 가서 상금을 받고 12일 이후에는 읍살라 등 주요 대학에서 강연회 등 여러 가지 부대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 일행은 12월 8일 도착 해서 시상식과 저녁 연회에 참석하기 위한 연회복을 준비해야 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드물게 수돗물을 그냥 마실 정도로 환경이 깨끗한 고소득의 복지 국가이다. 그러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고 북위 60도가 넘는 고위도 지방으로 아침 10시쯤 남쪽에서 잠깐 해가 올라 왔다가 오후 3시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도 대낮에 전조등을 켜고 달릴 정도로 음산함 그대로였다. 어둠 속에 양복점을 찾았으나 이미 서울에서 치수까

지 알려주었는데도 제대로 맞는 옷이 없어 몇 번을 고친 후 간신히 몸에 맞는 연회복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한국 양복점 같았으면 척척 맞았을 텐데 아무리 해도 양복 재단숨씨는 우리 한국의 기능 인력에 한참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12월 9일 저녁, 필자 일행은 노벨재단이 노르드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전야제 리셉션에 참석했다. 리셉션에는 수상자들은 물론 노벨재단 총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정부 각 부처 고위관료, 국회의원,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는 노벨재단 술만 총재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스웨덴 과학한림원장인 린드스텐 교수 부부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이들 부부는 최근 한국 영화인 ‘친절한 금자씨’를 보고 비록 잔인하기는 하지만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해주었다. 필자는 이들에게 더 한국적인 한류 드라마인 ‘겨울연가’ 등을 보내주기로 하고 귀국 후 감사 편지와 함께 송부해 주었다.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사람들로 시상식장 붐벼

12월 10일 아침에는 호주의 노벨의학상 수상자로서 국내에 헬리콥터 광고모델로 유명한 마셜 박사와 수상자들이 머무는 그랜드호텔에서 조찬을 가졌다. 그는 워런 박사와 함께 헬리콥터 파일로리군의 발견과 헬리콥터균이 위염과 소화성 궤양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로로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셜 박사는 3월초 국제공동연구사업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지노믹스 및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야의 젊은 한국과학자들을 진행중인 과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등과 공동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그랜드호텔 식당에서 그의 부모와 부인, 3명의 자녀와 손자 2명 등 다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었다.

이어서 10시에는 노벨시상식에 초청된 각국의 과학기술관련 장

관들이 참가하는 비공식 각료포럼에 참석했다. 여기에는 스웨덴의 파그로트스키 교육연구문화부 장관을 비롯하여 일본의 겐지 문부 과학성 장관, 프랑스 로빈 교육연구 장관, 인도와 파키스탄의 과학 기술 장관 등이 참석하여 각국의 이공계 대책, 과학 대중화 문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스웨덴 장관은 우리의 과학기술 부총리제도와 기술혁신본부 설치 운영,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드디어 오후 4시 반부터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필자 일행은 평생 처음 입어보는 연미복과 나비넥타이를 하고 식당인 콘서트홀에 도착했다. 홀 주변에는 노벨시상식을 하나의 귀족잔치라고 비난하며 시위하는 데모대도 목격되었다. 시상식장은 가슴에 주렁주렁 훈장을 단 텍시도차림의 남성과 각종 장식물을 단 여성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런 행사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평생 받은 여러 가지 훈장, 메달은 물론 장식물 등을 자랑하듯 달고 다닌다고 한다.

홀 안의 무대 위에는 청색 카펫이 깔리고 가운데에는 노벨을 상징하는 N자가 새겨진 흰색 로고가 있었다. 양측에는 청중을 향해서 놓인 좌석이 아카데미 회원들과 노벨재단 관계자 및 왕족들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그 맞은편에는 수상자와 각 상 소개자의 좌석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중앙을 향해 있었다. 과거에는 왕의 좌석이 무대 아래 청중석 맨 앞에 있었으며, 시상도 수상자가 단 밑으로 내려와 상을 받은 다음 다시 올라갔었으나, 1970년대 중반 구스타프 6세가 죽고, 그의 손자 칼 16세 구스타프 왕이 등극한 다음부터 좌석 배열이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상소감 없이 국왕이 상장, 금메달 등 직접 수여

시상식은 왕이 도착하자 팡파르가 울리고 무대의 중앙 통로를 통해서 수상자와 각 상 소개자,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들이 입장했다. 이어 엄숙하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재단 총재가 개회사를 하고 각 수상자 소개와 공적 발표에 이어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노벨재단의 마커스 스토치 총재의 개회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년도 노벨 축제에서 수상자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IAEA와 엘바라테이 사무총장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금년은 1895년 11월 27일 파리의 스웨덴·노르웨이 클럽에서 노벨이 유언장에 서명한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유언이 바로 노벨상과 노벨재단 탄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노벨이 원했던 젊은 유망 과학자들에게 대한 정신적·물질적 후원

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이 있음으로서 공적·사적 자본가들은 과학과 문화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최근 기초연구를 강조하면서 향후 50년내에 30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벨재단은 노벨의 유언을 받들어 젊은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노벨평화센터가 오슬로 시청 근처의 최상의 장소에서 준공했습니다. 스톡홀름의 노벨박물관은 폭넓은 그룹에까지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이동 박물관 사업은 서울, 도쿄, 뉴욕 등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인 Nobelprize.org는 매일 평균 7만 명이 방문하는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노벨상을 설명하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의 게임은 스웨덴 은행이 후원하는데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헉서-올린 이론을 보여줍니다.”

개회사에 이어 국왕은 수상자에게 차례대로 상장과 금메달, 그리고 상금액 증명서를 수여했다. 물리학상은 휴대전화, GPS 등 첨단기기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미국과 독일의 로이 글라우버(R. Glauber), 존 홀(J. Hall), 테오도어 헨슈(T. Hansch) 등 3인에게 주어졌다. 이어 화학상은 복분해합성법을 개발한 미국, 프랑스의 로버트 그럽스(R. Grubbs), 리처드 슈록(R. Schrock), 이브 쇼뱅(Y. Chauvin)에게 주어지고, 생리·의학상은 호주의 베리 마셜(B. Marshall)과 로빈 워런(R. Warren)이 차지했다. 그러나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헤롤드 핀터(H. Pinter)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대리 수상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학상은 협조적 게임 이론 등의 체계를 확립한 미국의 로버트 오만(R. Aumann), 토마스 셸링(T. Schelling)에게 주어졌다.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행사할 때처럼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지도 않고 수상소감을 발표하지도 않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수상소감 발표는 노벨만찬에서 간단히 이루어졌다. 우리처럼 처음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였으나, 이미 각 분야 별로 수상자의 강연과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ST**

노벨상 시상식 참관기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편집자주 -



글쓴이는 서울대 공대 졸업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했다.